

나부터 구속하라

최근 건국대생 김용찬씨와 김종곤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제7조 찬양·고무죄)로 체포된 사건은 그동안 신장되어온 한국의 자유에 역행하는 사건이다. 이들이 '이적' 행위를 했다는 증거의 하나가 이들이 마르크스의 <자본>, 알튀세르의 <맑스를 위하여>와 함께 내 책 <신좌파의 상상력> 등의 서적을 소지·사용했다는 것이라고 한다. 이 책들의 저자 중 유일한 생존자로서, 내 의견을 밝히는 게 의무이리라.

한국인들이 군사독재에 거둔 위대한 승리는 자기의사를 자유롭게 맘껏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가져와 한국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한국인들은 각각의 정치적 관점 때문에 더는 고문당하거나 살해되지 않았다. 삼청교육대도 사라졌으며, '부적절한' 때에 '부적절한' 곳에 있었다는 이유로 체포되는 일도 사라졌다. 사회적 쟁점을 토론한다고 해서 눈치를 살필 필요도 없게 됐다. 물론,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겠지만, 한국인들이 거대한 진보를 일궈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한국은 스리랑카에서 캄보디아와 미얀마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의 억압받는 이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기도 했다. 특히 광주 시민들이 궁극적으로 거둔 승리는 슬픔의 눈물과 절망을 기쁨과 희망으로 바꿔줬다. 한 보기로 망월동 국립묘지를 처음 방문했던 스리랑카 사람들은 "우리도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고, 광주시민연대와 화가 홍성담씨의 도움으로 결국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건국대생 두 명이 붙잡혀간 지금, 진보에 역행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는 듯하다. 19세기 때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역사가 일직선처럼 발전되지 않는다는 점이 잘 알려져 있다. 어제의 진보가 내일의 진보를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곧, 오늘날 한국이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와 번영을 이후 세대로 계속 누릴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만약 한국인들이 평화, 자유, 번영보다 '국가 안보'에 더 관심을 보이는 세력들의 새로운 독재에 함몰되기를 거부하지 못한다면 말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애국가법' 같은 강경 정책을 통해 경찰, 연방수사국(FBI), 중앙정보국(CIA)이 시민들의 자유보다 군산 복합체의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가 안보'라는 미명 아래, 미국 정부는 아랍인들과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인종 청소를 자행하고 있으며, 이들이 집회나 시위에 참여할 권리도 박탈해 버렸다. 게다가 일상적으로 가정을 방문하는 배선공들과 케이블 티비 설치공 등 수천명을 정부의 스파이로 쓰고 있기도 하다. 게다가 제2차 애국가법은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범죄시하고, 정부가 미국 시민권자들의 모든 권리를 박탈할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한국도 이를 따르려고 하는 것일까

국가 안보는 권력자들이 자주 악용하는 용어다. 따라서 우리는 "누가 '국가안보'와 '이적 행위'를 규정하는가"라는 질문 속에서 이번 사건을 바라봐야만 한다. 현 법무부 장관 강금실씨의 전 남편이 <자본>을 출판했다는 죄목으로 체포된 사건만큼이나 이번 사건은 근거 없다. 한국 헌법은 표현·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런데도 당시 노태우 정권은 지금 노무현 정권이 두 건국대생들을 체포했듯이, 강 장관의 남편을 체포했다. 훗날의 역사가들이 앞의 노 대통령과 뒤의 노 대통령을 똑같이 취급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체포된 건국대생들이 소지하고 인용했다고 하는 책들은 거의 모든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그 책들을 출판한 사람들도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이 서점들과 출판인들(그리고 나)에게도 이 학생들에게 적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다.

가장 많이 본 기사

- 호텔에서 욕상을 왜 꼴벌한..
- '원전 반대'하던 주인이 ..
- 우병우 '캐비닛 문건' 박..
- 연예인 핏줄도 실력인가요?..
- 노동장관 후보에 김영주...장..
- 4명 못 채워 자유한국당에..
- 본죽 '가맹점 허위정보' ..
- 영화인 듯 영화 아닌 영화..
- '수도권 100mm 폭우' ..
- '박근혜 감옥살이 꿀팁 전..

하니와 함께

- 하니 잘하시오
- 자유토론폰방 | 청소년토론폰마당
- 토론방 제안 | 고발합니다
- 한겨레투고 | 기사제보

쇼핑



- 한입에 소옥~ 유기농 방울토마토!
- 바삭바삭 감자스낵!!

- 속살탱탱 화이트비엔나소시지~
- 딱 1번만 짜는 초록참기름~
- 건강한 남성피부 포맨스킨~

여행

- 신개념 여름 배낭의 세계로
- 2005 실크로드 역사여행!
- 천년의 신비 양코르왓제국
- 전세기타고 북해도로~!

해외연수/유학

- 캐나다 국제학생!?
- 세계문화체험단 모집
- 캐나다 대학연계 프로그램
- 교환학생 실시간 통신문글

대통령이 되기 전,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다. 내 의견을 말하면, 건국대생 두명의 비극적인 사건은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을 보여주는 듯하다. 이들은 즉시 석방되어야 하며, 또다른 이들이 희생되기 전에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한다. 한국의 시민들은 겨우 최근에 획득한 자유를 또다시 잃기에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희생과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다.

조지 카치아피카스<신좌파의 상상력> 저자·전남대 5·18연구소 방문 교수

[기사들려보기](#) | [프린트하기](#)

☞ **기사에 대한 의견**

[글쓰기](#) | [목록보기](#) | [토론방가기](#)

32179	국민보안법이라도 만들어!?	무위자	2006-01-09
32178	국가 보안법은 왜 폐지할 수 없는가?	침묵의흐름	2006-01-09
32177	이명박, 썬글라스 차근해 등 떠밀다	장독대	2006-01-04
32176	국가 보안법 폐기를 바라며	makuni	2006-01-04
32175	[필]원로 이돈명 변호사가 말하는 '국보법 폐	반향아	2006-01-04

- [국가보안법] 보안법위반 동생 돕다 징계받은 국방부 군무원 이경선씨...06/13 18:22
- [국가보안법] 보안경찰, 할일이 없다?...05/18 20:02
- [국가보안법] 최재천, 국보법관련 연쇄 '청문회' 개최...05/08 16:47
- [국가보안법] 보안법 폐지·개정안 법사위 나란히 상정...05/02 19:24
- [국가보안법] 법사위 여야 국보법 개폐안 일괄상정...05/02 17:07
- [국가보안법] '보안법' 논의, 당리당락 떠나길...04/14 19:17
- [국가보안법] 국회, 보안법 논의 시작...회기 안 처리 '글썸'...04/14 18:08
- [국가보안법] 한나라당, 국보법 개정안 제출...04/14 14:05
- [국가보안법] 보안법 폐지-개정안 상정 합의...04/06 22:29
- [국가보안법] 여야 국보법 폐지안 법사위 상정 합의...04/06 18:40
- [국가보안법] 보안법 옷만 갈아입나...04/04 17:29
- [국가보안법] 임재정 의장 "보안법 폐지 입장 불변"...04/01 17:44
- [국가보안법] '월간조선' 마녀사냥 한나라당 색깔공세...03/31 18:30
- [국가보안법] 최장집교수 무형의 처분 배경...03/31 18:28
- [국가보안법] 최장집 교수 보안법 위반 무형의 ...03/31 17:47
- [국가보안법] 검찰, '태백산맥' 국보법 위반 무형의...03/31 11:37
- [국가보안법] 최장집 교수 국보법 위반 7년만에 무형의...03/31 11:35
- [국가보안법] 소설 '태백산맥'에 대한 11년의 고문...03/29 18:35
- [국가보안법] '태백산맥' 작가 조정래씨 무형의 처리키로 ...03/28 16:33
- [국가보안법] [인터뷰] 이적성 형의 벗은 작가 조정래씨 ...03/28 12:54
- [국가보안법] '국보법 위반' 한총련 백종호 의장 집유...03/25 11:19

맨위로